

성(姓)의 로마자 표기 방안

허철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서 론

성(姓)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는 이론과 현실이 맞물려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동안 성의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별다른 경험이 축적된 적이 없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종전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이나 그 이전의 여러 표기법에서 성의 표기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마련한 적도,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 성과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성의 로마자 표기를 개인의 자의적인 표기에 맡긴 채 방임하여 왔고 다양한 표기가 관습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별다른 묘안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 7. 7. 고시)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성의 로마자 표기를 통일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도 보여 준다.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제3장 제4항 2)

표기법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는 등 성 표기에 어려움은 많으나 표기법에서 규정한 이상 표준안을 정해야 한다. 더욱이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이미 고시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도 어렵다. 여기에서는 그 가능한 방안들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표기 실태

그동안 별도의 규정 없이 개인이 자의적으로 성의 로마자 표기를 한 결과 오늘날 표기 실태는 매우 혼란스럽다. 한 조사에 따르면¹⁾ ‘곽’씨의 경우 Kwak, Kwag, Gwak, Kwack, Gwag, Koak, Gwak 등 무려 69종에 이른다고 한다. 한자의 차이와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은 표기(라·로·류·리·림 등)를 무시하고²⁾ 한글 표기로 156개의³⁾ 주요 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표기는 평균 13.1개의 이종(異種)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성별로 김(Kim), 박(Park), 송(Song), 이(Lee), 최(Choi) 등 관습적인 표기가 굳어져 거의 일관된 표기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성에서 96~99%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성과 체계가 맞지 않는 등 심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박’씨는 Park처럼 초성을 무성음 글자 P로 표기하고 있는데 ‘방’씨는 Bang처럼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경우를 제외한 성의 로마자 표기 실태를 우세한 표기를 중심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국립국어연구원은 지난해에 '98년도 여권의 이름 표기 자료를 대상으로 표기 실태를 표본 조사한 바 있다. '곽'씨는 표본 수 3,300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 2) 표의문자인 한자가 갖는 차이점을 표음문자인 로마자를 이용하여 보이려는 것은 무리이다. 로마자 표기는 같은 표음문자인 한글의 표기 원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 맞춤법은 발음에 따라 두음법칙을 지켜 적는데 역시 발음에 따라 적는 로마자 표기법도 두음법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 3) 한국인의 성은 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인구 센서스 실시 결과 272성이었다고 한다(이수진 1991 : 32 참조).

【표 1】

성	관용	원칙	성	관용	원칙	성	관용	원칙
가(賈)	Ka	Ga	백(白)	Baek	=	육(陸)	Yook	Yuk
간(簡)	Kan	Gan	범(凡)	Bum	Beom	윤(尹)	Yoon	Yun
갈(葛)	Kal	Gal	변(邊)	Byun	Byeon	은(殷)	Eun	=
감(甘)	Kam	Gam	복(卜)	Bok	=	음(陰)	Eum	=
강(姜康)	Kang	Gang	봉(奉)	Bong	=	이(李異)	Lee	I
견(堅瓊)	Kyun	Gyeon	부(夫)	Boo	Bu	인(印)	In	=
경(景慶)	Kyung	Gyeong	빈(彬賓)	Bin	=	임(任林)	Lim	Im
계(桂)	Kye	Gye	사(史)	Sa	=	장(張章蔣)	Jang	=
고(高)	Ko	Go	사공(司空)	Sakong/g	Sagong	전(全田錢)	Jeon	=
공(孔)	Kong	Gong	상(尙)	Sang	=	정(丁程鄭)	Jung	Jeong
곽(郭)	Kwak	Gwak	서(徐)	Seo	=	제(諸)	Je	=
구(丘具)	Koo	Gu	석(石)	Suk	Seok	제갈(諸葛)	Jegal	=
국(國菊鞠)	Kook	Guk	선(宣)	Sun	Seon	조(曹趙)	Cho	Jo
궁(弓)	Koong	Gung	선우(鮮于)	Sunwoo	Seonu	좌(左)	Jwa	=
권(權)	Kwon	Gwon	설(薛)	Seol	=	주(周朱)	Joo	Ju
금(琴)	Keum	Geum	성(成)	Sung	Seong	지(池)	Ji	=
기(奇)	Ki	Gi	소(蘇)	So	=	진(秦陳)	Jin	=
길(吉)	Kil	Gil	손(孫)	Son	=	차(車)	Cha	=
김(金)	Kim	Gim	송(宋)	Song	=	채(蔡)	Chae	=
나(羅)	Na	=	승(承)	Seung	=	천(千)	Chun	Cheon
남(南)	Nam	=	시(柴)	Si	=	최(崔)	Choi	Choe
남궁(南宮)	Namgung	=	신(申辛)	Shin	Sin	추(秋鄒)	Choo	Chu
노(盧魯)	Noh/No	No	심(沈)	Shim	Sim	탁(卓)	Tak	=
단(段)	Dan	=	안(安)	An	=	태(太)	Tae	=
도(都)	Do	=	양(梁楊)	Yang	=	판(判)	Pan	=
동(董)	Dong	=	어(魚)	Eo	=	팽(彭)	Paeng	=
두(杜)	Doo	Du	엄(嚴)	Eom	=	편(片)	Pyun	Pyeon
마(馬)	Ma	=	여(呂余)	Yeo	=	표(表)	Pyo	=
맹(孟)	Maeng	=	연(延燕)	Yeon	=	피(皮)	Pi	=
명(明)	Myung	Myeong	염(廉)	Yeom	=	하(河夏)	Ha	=
모(牟毛)	Mo	=	예(芮)	Ye	=	한(韓)	Han	=
목(睦)	Mok	=	오(吳)	Oh	O	함(咸)	Ham	=
묵(墨)	Mook	Muk	옥(玉)	Ok	=	허(許)	Heo	=
문(文)	Moon	Mun	온(溫)	On	=	현(玄)	Hyun	Hyeon
미(米)	Mi	=	왕(王)	Wang	=	형(邢)	Hyung	Hyeong
민(閔)	Min	=	용(龍)	Yong	=	호(扈胡)	Ho	=
박(朴)	Park	Bak	우(禹)	Woo	U	홍(洪)	Hong	=
반(潘)	Ban	=	원(元)	Won	=	황(黃)	Hwang	=
방(房方)	Bang	=	위(魏)	Wi	=			
배(裴)	Bae	=	유(柳劉劉夷)	Yoo	Yu			

* A/B : A가 사용 빈도 높음

* = : 관용 표기가 표기법과 일치

위 표는 우세한 표기만을 보인 것인데⁴⁾ 같은 성씨 내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기까지 생각하면 그 혼란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표기 실태를 음운별로 보아도 다음과 같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⁵⁾

【표 2】

자 음(초성)		자 음(종성)		모 음	
ㄱ	K	ㄱ	k	ㅏ	a/ar
ㄴ	N	ㄴ	n	ㅑ	u/eo
ㄷ	D	ㄷ	l	ㅓ	o/oh
ㅁ	M	ㅁ	m	ㅜ	oo/woo/u
ㅂ	B/P	ㅂ	p	ㅡ	eu
ㅅ	S/Sh	ㅇ	ng	ㅣ	i/ee
ㅇ	표기 안함/L			ㅐ	ae
ㅈ	J/Ch			ㅔ	e
ㅊ	Ch			ㅖ	oi
ㅌ	T			ㅗ	wi
ㅍ	P			ㅛ	ya
ㅎ	H			ㅠ	yu/yeo
				ㅠ	yo
				ㅠ	yoo
				ㅟ	ye
				ㅘ	wa
				ㅚ	wo

4) 이 실태는 서정수(1991)에서 '백Paik(/본고Baek), 서Suh(/Seo), 안Ahn(/An), 추Chu(/Choo), 피Pee(/Pi), 허Huh(Heo)' 등이 우세한 표기라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정수(1991)는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각 성의 여러 표기들이 비슷하게 분포한다는 보고가 우리의 결과와 너무 달라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통계 자료는 표본수 200,026이다.

반 Ban, Van cf. 본고 표본수 764, Ban(89.6%), Bahn(4.5%), ...

어 Eo, Ouh cf. 542, Eo(51.2%), Uh(13.2%), Eoh(4.4%), ...

원 Won, Wohn, Wone cf. 3294, Won(92.5%), Weon(6.0%), ...

채 Chae, Chai, Czae cf. 3300, Chae(77.9%), Chae(14.3%), ... 등.

5) 자음을 '초성'과 '종성'으로 분류한 것은 편의상 분류이다. '남궁/사공/제갈'의 'ㄱ'도 초성인데 모두 표기법대로 'g'로 표기되고 있다. 이들은 위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3. 표준안의 필요성

로마자 성 표기의 표준안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렇다. 물론 이에 대하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⁶⁾ 현재 개인별로 정하여 쓰고 있는 인명 표기가 여권·신용카드·각종 증명서 등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나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표준안 제정을 반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름의 경우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⁶⁾ 더욱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의 이름 표기가 앞으로 표기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표기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하면 이름 표기의 변경은 불가피한 일이어서 성을 그대로 둔다고 해도 결국 인명 표기의 혼란은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 표기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할 적극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표기법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 표기법은 문자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므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여야 효과적이다. 정서법을 정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로마자 표기도 동일한 성을 동일하게 표기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⁷⁾

둘째로,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정보화되어 갈 것이고 이때 인명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명을 자료화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 불규칙한 표기 자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곽'씨 성을 가진 사람을 로마자 표기 자료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6) 물론 일시적인 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제7항)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 정신은 앞으로 현행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7) 종종 국내선의 항공권을 보면 탑승객의 이름이 전혀 엉뚱한 로마자 표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도 로마자로 적는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안이 정해지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작업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성의 기본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 성은 공통된 조상을 갖는 사람들이 친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곧 성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인데, 만일 같은 성을 가진 구성원들끼리 개인적으로 다른 성 표기를 한다면 성의 의미가 없어진다. 당연히 한글·한자 표기처럼 로마자 표기도 공통된 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로마자는 대체로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인데 동일한 성이 여러 가지로 표기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앞으로 국제화는 더욱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므로 혼란스러운 표기 실태를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좋다.

표준안을 정할 경우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주요 학자·예술가 등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정보·자료화되어 있어 표기를 바꿀 경우 오히려 정보 검색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문제를 이유로 표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자료보다 다가올 미래의 표기 정보는 훨씬 방대한 양이므로 표준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떠안아야 할 부담과 혼란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표준안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른 혼란은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4. 표기 방안

표준안 제정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난해한 과제이다.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과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 표기 모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표준안이 단일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하여 복수로 표준안을 정할 경우 표준안을 정하지 않은 것과 다를 게 없다. 단일한 표준안을 정한다고 할 때 대략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4.1. 표기법에 따른 표기 방안

성도 예외 없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방안이다. 지명·이름·화제명 등 모든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을 때 표기법에 따라 적으므로 성도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일관성이 있다. 또 규범으로서 표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방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구체적인 표기법은 위 표 1 ‘원칙’ 항 참조). 따라서 이 방안의 가장 큰 장점은 로마자 표기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매우 쉽고 체계적인 표기 방안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다수가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기를 무시하고 원칙에 따른 표기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현행 표기법에 따라 성을 적을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성이 관용 표기(물론 우세한 표기에 한한 것이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성도 많은데 그 성씨 사용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표준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욱이 일치하지 않는 성 가운데 ‘김, 이, 박, 최’ 등 큰 성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또 표기법에 따라 적을 경우 ‘이, 오, 우’ 등은 각각 I, O, U처럼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표기는 매우 생소하고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강, 노, 신’씨 등 일부 성은 Gang, No, Sin이 되어 부정적인 의미의 영어 단어와 같아져 역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언어들끼리 전사할 때 그 나라 말로 이상한 뜻이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또 영어 외 다른 언어에서 보면 어떤 성이 또 그럴지 알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을 일일이 문제 삼아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기피할 경우 성 표기 표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선택 여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지명 등과 마찬가지로 표기법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기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에서 이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미 표기법에서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 표기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표기 원칙과 달리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⁸⁾ 이와 같이 예외로 정하는 것도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므로 표기 원칙에 부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안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2. 관용에 따른 표기 방안

지금 사용자들이 쓰는 대로 관습적인 표기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표기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방안보다 덜 생소하여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다수가 쓰는 표기를 채택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표준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이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단히 비체계적이다. 언어의 음운·형태·통사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자들이 쉽게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듯이 표기법도 가능한 한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자음의 경우, 'ㄱ' 계열의 성은 (초성) 자음을 무성음 K로 표기하고 있어 'ㄷ, ㅂ, ㅈ' 등을 초성으로 갖는 다른 성(동·두·방·배·전·주 등)에서 이를 D, B, J의 유성음으로 주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불균형을 이룬다. 또 'ㅂ, ㅈ'은 성에

8) 로마자 표기법에서 자음 사이의 동화는 표기에 반영하면서도(제3장 제1항) 체언의 격음화와 경음화 현상은 반영하지 않도록(제3장 제1항 4조 '다만'과 '붙임') 규정한 것이나 이름의 경우 음절 사이의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것도 예외적인 것이다. 이것은 모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표기법을 적절히 손질한 예들이다.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 표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ㅅ’은 S/Sh가 함께 쓰이고, 초성이 ‘ㅇ’인 경우 대부분 표기하지 않으나 ‘이’씨의 경우는 L로 표기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에도 ‘ㅡ’는 eu로 표기하고 있으나 ‘ㅣ’는 u로 표기하며, u는 다시 ‘ㅜ’ 표기에도 쓰인다. 또 ‘ㅓ’, ‘ㅗ’는 각각 u/eo, oo/woo/u 등 두세 가지의 표기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우 불규칙한 표기 방안은 아무리 성이 별도의 표기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규칙과 체계를 갖추어야 표기법으로서 효용성을 지닐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이 방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텐데 이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다. 단일한 표준안을 전제로 하는 한 관용 표기에서 1개의 표기만 선택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는 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다른 표기를 사용하던 이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선택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취약한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이 비체계적인 방안일수록 사용자들이 수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3. 예외를 허용하는 표기 방안

표기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문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 어려우므로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되거나 영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 등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것만 예외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이다.⁹⁾

이에 따라 ‘이, 오, 우’는 각각 Yi, Oh, Wu로 적는다. Yi, Oh는 그동안 익히 써 오던 표기이고, Wu는 ‘우’를 적던 Woo의 표기가 ‘우’를 ‘oo’로 적고

9) 실제로 로마자 성 표기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로마자 사용 국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인명 표기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한 글자로 표기된 성은 매우 이상한 표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다는 점에서 허용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새로 정하는 표기이다. 그리고, '강, 신, 노'는 Gang, Sin, No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피하여 Gahng, Shin, Noh와 같이 쓰게 된다. 다만 이 경우까지 꼭 고려해야 하는가는 사람마다 의견차가 크므로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예외를 두는 한편 동시에 그 예외를 최소화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원칙 표기에서 특히 한 글자로 표기되는 성의 거부감을 줄여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관용 표기에서 이름이나 지명 표기와 불일치되는 문제를 거의 없앨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용 표기에 따르면 '김기수'는 'Kim Gisu'가 되어 이름과 일치하지 않고 'Gimpo'와 같은 지명과의도 일치하지 않는데, 이 방안에서는 'Gim Gisu'가 되므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 방안은 대부분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므로 모든 성을 기억하고 적는 데 부담감이 적은 효과도 있다.¹⁰⁾

사실 이 방안은 '로마자 한 글자로 적히는 소수의 성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정도이므로 원칙에 따른 표기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현재 다수가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기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원칙에 따른 표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예외를 몇 개의 큰 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른바 큰 성은 씨족이 많은 성씨인데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로마자 표기 빈도도 다른 성씨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몇 개의 큰 성의 로마자 표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자는 견해이다. 즉 앞의 성씨와 함께 '김'씨, '박'씨, '이'씨, '조'씨, '최'씨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성에 쓰이는 Kim, Park, Lee, Cho, Choi 등이 워낙 보편화되고 익숙하여 이를 달리 표기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앞의 예외적인 표기 방안보다 성씨 표기의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10) 이것은 그리 두드러진 장점은 아니다. 어떻게 정하든 300개가 채 안 되는 성의 표기를 기억하고 사용하는 데 크게 부담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러나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5. 제 안

우리는 위에서 가능한 세 가지 표기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각 장점을 지니고 있는 한편 단점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방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부각되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1. 이를 위하여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접근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관점을 정리하면 성 표기 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단일한 표준안을 만든다.
2. 성 표기는 표기 원칙에서 자유롭다.
3. 표기 원칙과 관용을 모두 고려한다.
4. 표준안이 단일안이므로 관용은 가장 우세한 표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5. 가능한 한 체계를 고려한다.

문제의 동기는 원칙과 관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당연히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 방법은 관용을 기초로 점검해 보는 것인데, 관용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으면 원칙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관용에 따른 표기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나치게 체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관용 인정 여

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모음의 표기를 보자. 모음의 경우 표기법과 다른 것이 우세한 경우는 ‘ㄱ, ㅏ, ㅓ, ㅗ, ㅛ’로서 각각 ‘u, oo, oi, yu, yoo’로 적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ㄱ(u), ㅏ(oo), ㅓ(oi)’의 문제로 요약된다. 그런데 ‘eo, u’가, 적은 수 이기는 하지만 각각 ‘ㄱ’과 ‘ㅏ’를 위한 표기에도 사용되고 있고, ‘ㅓ’가 eu로 적히고 있으므로¹¹⁾ 그에 맞추어 표기법대로 ‘ㄱ’은 eo, ‘ㅏ’는 u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ㅓ’는 ‘ㅓ’씨의 경우가 유일한데, 성 표기는 표기 원칙에서 자유롭다는 우리의 전제에서 달리 표기해야 할 마땅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다만 oi의 표기는 단모음 ‘ㅓ’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과 맞물려¹²⁾ 이를 ‘ㅓ+ㅣ’로 분석하여 표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면 단모음으로서의 ‘ㅓ’의 표기를 규정한 표기법대로 oe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초성의 자음과 달리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모음은 모두 표기법과 같아진다.

‘ㅇ’을 포함하여 초성의 자음을 보자. 앞의 표 2를 보면 ‘ㅂ, ㅅ, ㅇ, ㅈ’이 ‘B/P, S/Sh, 표기안함/L, J/Ch’의 두 가지로 쓰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ㅂ’의 P, ‘ㅈ’의 Ch는 각각 ‘ㅍ’과 ‘ㅊ’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 ‘ㅇ’의 경우 ‘ㅇ’씨가 L로 쓰고 있는데, 표기를 안 하거나 반모음(Y·W)을 쓰는 ‘ㅇ, 양, 왕’ 등 다른 모음 성과 달리 자음 표기를 어두에 내세우고 있을뿐더러 ‘양(梁楊樑), 염(廉), 용(龍)’씨 등 두음법칙에 따르는 다른 성과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관용 표기에서 일부 성에만 쓰이는 P, Sh, L, Ch를 각각 B, S, 표기안함, J로 통일하면 체계적인 표기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라, 류’씨 등은 당연히

11) ‘ㄱ’과 ‘ㅓ’가 동류로서 비교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매우 어려운 단모음으로서 그동안 이 둘이 동시에 문제되어 왔고, 그 해결 방안도 eo, eu 처럼 두 글자를 사용하는 등 유사한 점이 많아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주 함께 논의된다.

12)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된다.

두음법칙에 따라 ‘나, 유’에 대한 로마자 표기를 하고, ‘사공’씨의 경우 ‘Sakong/Sagong’처럼 어중의 자음이 두 가지가 대등하게 우세한데 ‘남궁, 제갈’(Namgung, Jegal)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Sagong’로 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본고의 전제에서 거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ㄱ’ 계열의 성이다. ‘ㄱ’ 계열들은 관용적으로 모두 K 표기를 하고 있다.¹³⁾ 따라서 자체 내에서는 체계적이다. 또 ‘ㄱ’ 계열은 G/K 표기에서 대립하는 ‘ㅋ’ 계열의 성이 없어 어느 것으로 하든 변별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특수 부호가 생략되면 평음과 격음의 대립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었다. 그런데 ‘ㄱ’ 계열의 성은 그러한 문제가 없으므로 G/K의 선택에서 자유로운 것이다.¹⁴⁾

그런데 K로 선택할 경우 ‘ㄱ’ 계열은 무성음 K로 표기되고 있는 반면, ‘ㄷ, ㅈ’은 유성음 B, D, J의 유성음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전체 체계의 문제가 생긴다.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체계를 고려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둘 다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즉 ‘ㄱ’ 계열만 예외적으로 관용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점에 대하여 다른 성이 반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역시 G로 표기하는 것이 좀더 좋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기법에 가까워지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검토할 또 다른 문제는 ‘이, 오, 우’씨의 표기 문제와 ‘강, 노, 신’씨의 표기 문제이다. ‘이, 오, 우’씨는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어떻게 결정하든 전체 체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가

13) 물론 표본수가 확대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료에서 G로 표기되는 경우는 ‘갈’씨가 Gal 표기가 41.2%, ‘가, 간, 길’씨가 20%를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10% 안팎이어서 표본수가 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 물론 표기법에서 K는 ‘ㅋ’을 표기하는 문자이지만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성 표기는 표기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권한을 받았다고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것은 Yi, Oh, Wu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강, 노, 신’씨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예외적인 표기를 인정하면 다른 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까지 있다.¹⁵⁾ 그 영향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외적인 표기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체계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오, 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받아들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Gahng, Noh, Shin’와 같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와 같이 예외를 허용할 경우에는 (1)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되는 성 (2) 영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뚜렷한 성이라는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이 표기 방안은 표기법에 따른 표기에서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표기하는 결과가 된다.

【표 3】 예외 표기 6개 성씨

1.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되는 것	이, 오, 우
2. 영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큰 것	강, 노, 신

이상과 같이 검토하면 관용에 따른 표기 방안은 포기하는 셈이며 온전히 표기 원칙에 따른 표기 방안도 아니다. 이 결론은 세 번째 방안에서 예외를 최소화한 것과 같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원칙과 관용을 모두 고려하면서 체계를 중시하여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끌어낸 결론이어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5.2. 위의 제안이 ‘김’을 Gim으로 적는 데서 느끼듯 기존의 표기 습관과

15) 예를 들어 ‘노’씨를 Noh라고 표기하면 ‘고, 도, 두, 사, 시, 조, 지, 피’씨 등도 Goh, Doh, Duh, Sah, Sih, Jih, Pih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달라 받아들이는 데 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4.3.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즉 ‘김, 박, 이, 조, 최’ 등 현실적인 관습과 표기안의 이질감이 큰 경우 현실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방안은 관용을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표준안 1’을 기초로 하되 일부 예외를 더 확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본고의 전제에서 ‘가능한 한 체계를 고려한다’는 원칙을 다소 약하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어디까지 예외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본고는 다음의 성씨들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표 4】 확대한 예외 표기 27개 성씨¹⁶⁾

1. 로마자 한 글자로 표기되는 것	이, 오, 우
2. 영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큰 것	강, 노, 신
3. 큰 성씨 및 기타	김 및 ‘ㄱ’ 계열의 성씨 19개, 박, 이

‘김’씨의 경우는 같은 ‘ㄱ’ 계열의 성이 모두 초성 자음을 K로 쓰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K로 적을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으므로 ‘김’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씨도 관용처럼 모두 K로 적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이 경우 ‘강 Gang’을 Gahng와 같은 표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박’씨와 ‘이’씨는 흔히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Park, Lee로 독특하게 표기하는 것인데, 특히 ‘이’씨의 경우 ‘나(羅), 노(盧·魯), 유(柳)’씨 등이 Ra, Ro(h), Ryu등으로 써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예

16) ‘ㄱ’ 계열의 성씨 19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한글 표기 156종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성씨 중 ‘ㄱ’ 계열의 성씨는 한자 표기로는 37종이며 한글 표기 만으로는 25종이 있다(경제기획원 1985년 통계 참조). 본고 대상 외 성씨는 각각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수가 적은 만큼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표기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들은 한글 표기도 '라, 로, 류' 등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과 맞물려 있는 경우들로서 '이'씨와 꼭 같지는 않다. '이'씨는 한글 표기는 '이'가 정착되어 있으면서 그와 무관하게 종래의 Lee 표기가 관습적으로 쓰이는 경우이다.

'조'씨와 '최'씨는 이와 같이 예외로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다. '조'씨의 경우는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¹⁷⁾ Cho 표기가 완전히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¹⁸⁾ 비록 소수의 성씨이기는 하나 '조(肖楚) Cho'씨와 변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씨는 Jo로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줄이는 방안이다. '최'씨의 경우는 앞의 성들이 특히 초성 자음에서 원칙과 다른 것과 달리 모음 표기가 다른 경우이다. 매우 큰 성씨이고 Choi 표기가 97%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며 oi의 표기가 다른 성씨에서 쓰이는 일도 없으므로 Choi의 표기를 인정할 여지도 크다. 그러나 표기 원칙에 따라 Choe로 적어도 Choi와 거리감이 크지 않고 가능하면 모음 표기를 고정한다는 의미에서 Choe로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방안은 체계가 상당히 약화된 것인데, 대신 '표준안 1'에 비한 장점은 관용 표기를 상당히 인정함으로써 거부감을 줄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예외적인 표기에서 제외된 다른 성씨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한 표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이 '표준안 1'을 기본적인 표기안으로 제안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표준안 2'를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다.

17) 인구수로 '趙'씨가 7위, '曺'씨가 28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씨'항 참조)

18) Cho가 87.9%, Jo가 10.7%를 차지한다(표본수 3300).

【표 5】 표준안(제안)

성	표준안 1	표준안 2	성	표준안 1	표준안 2	성	표준안 1	표준안 2
가	Ga	Ka	백	Baek	Baek	육	Yuk	Yuk
간	Gan	Kan	범	Beom	Beom	윤	Yun	Yun
갈	Gal	Kal	변	Byeon	Byeon	은	Eun	Eun
감	Gam	Kam	복	Bok	Bok	음	Eum	Eum
강	Gang(Gahng)	Kang	봉	Bong	Bong	이	Yi	Lee
건	Gyeon	Kyeon	부	Bu	Bu	인	In	In
경	Gyeong	Kyeong	빈	Bin	Bin	임	Im	Im
계	Gye	Kye	사	Sa	Sa	장	Jang	Jang
고	Go	Ko	사공	Sagong	Sagong	전	Jeon	Jeon
공	Gong	Kong	상	Sang	Sang	정	Jeong	Jeong
곽	Gwak	Kwak	서	Seo	Seo	제	Je	Je
구	Gu	Ku	석	Seok	Seok	제갈	Jegal	Jegal
국	Guk	Kuk	선	Seon	Seon	조	Jo	Jo
궁	Gung	Kung	선우	Seonu	Seonu	좌	Jwa	Jwa
권	Gwon	Kwon	설	Seol	Seol	주	Ju	Ju
금	Geum	Keum	성	Seong	Seong	지	Ji	Ji
기	Gi	Ki	소	So	So	진	Jin	Jin
길	Gil	Kil	손	Son	Son	차	Cha	Cha
김	Gim	Kim	송	Song	Song	채	Chae	Chae
나	Na	Na	승	Seung	Seung	천	Cheon	Cheon
남	Nam	Nam	시	Si	Si	최	Choe	Choe(Choi)
남궁	Namgung	Namgung	신	Sin(Shin)	Shin	추	Chu	Chu
노	No(Noh)	Noh	심	Sim	Sim	탁	Tak	Tak
단	Dan	Dan	안	An	An	태	Tae	Tae
도	Do	Do	양	Yang	Yang	판	Pan	Pan
동	Dong	Dong	어	Eo	Eo	팽	Paeng	Paeng
두	Du	Du	엄	Eom	Eom	편	Pyeon	Pyeon
마	Ma	Ma	여	Yeo	Yeo	표	Pyo	Pyo
맹	Maeng	Maeng	연	Yeon	Yeon	피	Pi	Pi
명	Myeong	Myeong	염	Yeom	Yeom	하	Ha	Ha
모	Mo	Mo	예	Ye	Ye	한	Han	Han
목	Mok	Mok	오	Oh	Oh	함	Ham	Ham
묵	Muk	Muk	옥	Ok	Ok	허	Heo	Heo
문	Mun	Mun	온	On	On	현	Hyeon	Hyeon
미	Mi	Mi	왕	Wang	Wang	형	Hyeong	Hyeong
민	Min	Min	용	Yong	Yong	호	Ho	Ho
박	Bak	Park	우	Wu	Wu	홍	Hong	Hong
반	Ban	Ban	원	Won	Won	황	Hwang	Hwang
방	Bang	Bang	위	Wi	Wi			
배	Bae	Bae	유	Yu	Yu			

6. 결 론

성의 로마자 표기법은 개인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단순히 논리와 이론으로써 해결될 수 없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표준안은 반드시 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표기법의 원칙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관용의 현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실제 쓰여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표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각 성씨 중친회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표준안으로 정하든 사용자들이 수용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또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방안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표준안이 결정되면 여권 및 주민등록증 표기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공문서·인터넷에서 표준안에 따르는 표기만 인정하고,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보급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성의 로마자 표기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 국립국어연구원(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 국립국어연구원(2000). 「회의록」(성씨 로마자 표기 1·2차 자문위원회 회의)
- 김복문(1996).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 연구』. 무역출판사.
- 김세중(1997).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실태」.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 서정수(1991).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
- 송기중(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사용 실태 조사 연구」. 『문화체육부 용역 보고서』.

- 이상억(1994). 『국어 표기 4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수건(1991). 「한국 성씨의 由來와 종류 및 특징」. 『새국어생활』 제1권 제1호.
- 이익섭(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 정희원(1997). 「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 『새국어생활』 제7권 제2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2권.